

상이 꿩(雉)이 얹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치(雉)고개라 한 것이 변음(變音)되어 직고개가 되었다고 전한다. 또 마을 뒤편에서 평해 방향으로 가는 고갯길의 경사도(傾斜度)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다 하여 직고개(直古介)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지씨(池氏)가 고개에 살았다 하여 지고개(池고개)라 하던 것이 변음되어 직고개라 하였다고도 전한다.

제12절 평해1리(平海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평해1리는 평해읍의 중심지로 읍사무소와 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등 관공서가 위치하며, 마을의 중심에 전통 장사인 평해장터가 형성되어있다. 또 옛 7번국도와 연결한 마을의 입구에 버스정류장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서쪽은 금곡산(金谷山)[일명 三聖山]이고, 동서쪽 청학산(靑鶴山)과 평해(平海)의 안산(案山) 사이에 평해평야(平海平野)가 전개되며, 남대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북쪽은 평해성지(平海城趾) 밑에 있는 평해2리와 읍사무소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남쪽 도로변은 시장(市場)과 상가로 되어 있으며, 도로 안쪽은 농경지이다.



<그림 23> 남대천

2. 마을의 역사

삼한(三韓)시대에는 진한(辰韓)과 예(穢)에 속하였고, 고구려 때에는 근을어현(斤乙於縣)에 속하였다. 940년(태조 23)경 혹은 995년(성종 14)에 평해현으로 개칭되고, 1018년(현종 9)부터 1295년(고종 46)까지 현재 영덕군 영해면인 예주(禮州)에 속하였다. 1297년(충렬왕 3)에 평해인 황서(黃瑞)가 왕을 따라 중국 원나라에 들어가 공을 세웠다 하여 평해군[平海郡 : 별호는 기성]으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해군 상리면(上里面) 상성저리(上城底里)로 되었으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해군이 울진군에 편입되어 울진군 평해면 평해리로 되었다. 이때 동문리(東門里)·상성저리(上城底里)·하성저리(下城底里)·송릉리(松陵里)의 4개 리가 평해리로 편입되었다. 1944년 평해리는 평해1리·2리·3리로 분구(分區)되었다.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2. 1]로 평해면이 평해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평해1리가 되었다. 마을회관은 1978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지소는 2011년에 건립되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남대천 위로 7번국도 4차선이 새로이 개설되었으며 최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마을 앞 남대천 위로 개설되고 있다.

월송리에서 평해읍 중심지인 평해1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평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며, 오곡리 방향으로 평해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 2020년 7월에 개칭한 남울진민원센터가 운영되며, 평해읍사무소 앞쪽에 평해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다.

3. 가구 분포

총 191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주를 이루며 기타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남울진민원센터

2020년 7월 1일 개칭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울진군청의 행정업무 중 건축·개발행위·농정·수산업무를 수행하며, 생활민원기동팀이 상주하여 주민들의 생활복지 민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동제(洞祭)

음력 정월 15일, 음력 5월 5일, 음력 9월 9일 년 3회 제사를 지낸다. 음력 설날에는 마을 어른들을 마을회관에 모시고 합동으로 세배를 하며 음식을 대접한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는 평해청년회가 주관하는 남대천단오제가 남대천(南大川) 고수부지에서 매년 열린다.

3) 복지회관

1987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건평 약 200여 평]로 유아원, 노인학교, 서예 교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아원은 최근에 평해어린이집으로 신축, 이전되었다.

4) 성황당(城隍堂)

1950년대에 신축하여 황씨신(黃氏神)을 모시는 곳이다.

5. 전설

상리·상성리(上城里)·상성저리(上城底里)는 모두 이 마을의 옛 이름으로 과거 평해군청 소재지 외각에 축조된 평해석축성(平海石築城)의 위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먼 옛날에 정씨(鄭氏)가 다래밭을 걷고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제13절 평해2리(平海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청학산(靑鶴山), 서북쪽은 금곡산[金谷山 : 일명 三聖山]의 능선을 따라 석축(石築)으로 쌓아진 평해성터(平海城址)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며, 그 사이에 평해들이 펼쳐있다. 마을 앞을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南大川)이 있다. 읍사무소에서 서쪽 도로와 남행(南行) 도로를 경계로 평해1리와 접하고, 남행 도로변은 상가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평해성터 동쪽에 평해향교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평해리에 분구(分區)되어 평해2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 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평해2리가 되었다. 마을회관은 1985년에 신축 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